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3. 1. 31.(화) 11:00 < 2.1.(수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1. 31.(화)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 석탄광물산업과(광물자원팀)	책임자	팀 장 정대환 (044-203-5259)
		담당자	사무관 신승일 (044-203-5258)

민관이 함께 핵심광물 비상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하다

- 금속비축 종합계획('22.12월 발표) 이행 방안 논의 -

- 핵심광물 수요기업과 광해광업공단 간 비축협력 협약 체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.31.(화) 오후 4시, 서울 롯데호텔에서 **「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」를 개최**하고, 간담회에 참석한 핵심광물 수요기업과 광해광업공단 간 **금속비축 상호 협력을 강화**하기 **위한 협약식**을 가졌다.

<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 개요 >

○ (**일시/장소**) '23.1.31.(화) 16:00,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

○ (**참석**)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,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, 코스모화학 대표, SK스페셜티 부사장, 현대자동차 상무, 포스코 상무, 현대제철 상무, 광해광업공단 사장 등

○ **주요내용 : 핵심광물 비축 민간지원 제도 소개, 민-관 금속비축 협약식 체결**

□ 간담회에서는 「금속비축 종합계획('22.12월)」을 통해 발표된 희소금속 **순환대여제도** 등 **민간 지원 제도**의 **활성화 방안**에 대해 논의하고,

○ 국내 주력산업인 **철강, 이차전지, 전기차, 반도체 산업**에 필수적인 **핵심광물의 비상 수급위기 시, 민-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대응 방안**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< 금속비축 종합계획('22.12월 발표) 주요내용 >

◆ **△비축확대, △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, △비축기반 고도화** 등

- **(비축확대)** (비축일수) (비철금속) 56일 → 60일, (희소금속) 57일 → 100일
  (품목) ('22년) 25종 34품목 → ('31년) 26종 41품목
- **(대응체계 합리화)** 방출 절차 간소화(現 60일 → 30일), 순환대여제도 도입 등
- **(비축기반 고도화) 희소금속 전용기지 신설,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 신설 등**

□ 광해광업공단(희소금속 비축 담당기관)이 민간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**신규**로 **도입**한 **△희소금속 공동구매·비축, △순환대여제도, △방출제도 개선 방안** 등을 소개하였다.

① **(공동구매·비축)**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희소금속을 광해광업공단이 우선 구매·비축한 후 방출*하여 중소기업들의 **직접 조달 애로 및 원가 부담** 등 **경영상 애로를 경감**

* 공동구매를 원하는 기업이 일정기간 내 약정한 물량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

② **(순환대여제도)** 민간 기업이 정부의 비축품목을 일정 주기로 '인도↔상환' 하여 기업은 **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**하면서 **정부**는 **비축제고 품질을 유지**

* (대상) 변질가능한 화합물, (수수료) 現 3% → **改 무상**, (대여기간) 現 90일 → **改 6개월**

③ **(방출제도 개선)** 민간 수요기업이 수급상황별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방출 등 **다양한 방출제도**를 **도입**하고, 방출 소요기간을 절반이상(60일→30일) 단축하는 등 수급위기 발생 시 국가 비축물을 **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**를 **개선**

* (현행) 일반방출 → (개선) 일반방출, 긴급방출, 순환방출 등으로 확대·운영

□ 아울러 **국가 미래 산업**의 **경쟁력을 확보**하고 수요업계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**광해광업공단**과 **산업별 대표 수요기업*** 간 **민-관 금속비축 상호 협력**을 **위한 협약**을 **체결**하였다.

* (이차전지) 에코프로머티리얼즈, 코스모화학, (전기차) 현대차, (반도체) SK스페셜티 (철강) 포스코, 현대제철

○ 본 협약에 따라 광해광업공단은 **국내 수요업계의 공급 충격**을 **완화**하기 위해 산업수요가 높아지는 **신규 비축품목 지속 발굴**, **비축제도 개선**, **수급 리스크 모니터링** 등 **민간 지원을 확대**해 나가고,

○ 수요업계는 국가 비축품목의 품질유지 등을 위한 **순환대여**, **시범방출**, **공동비축 제도 운영**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.

□ 천 실장은 러-우 전쟁 등 **지정학적 위기**, 주요 공급국의 **핵심광물** 수출 통제* 등으로 **글로벌 공급망**의 **불균형**이 **심화**되어 **핵심광물의 수급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**지고 있다면서,

* (칠레) 리튬은 자국 공기업 주도 개발 추진, (인니) 니켈원광 수출금지('19.9)

○ 핵심광물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**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요소**임을 강조하고, 핵심광물의 **해외자원확보 → 비축확대 → 재자원화**로 연결되는 **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**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.

○ 특히, 핵심광물 국가 비축제도를 강화하여 수급 위기 시 적기에 대응하고, **희소금속 공동구매·비축**, **순환대여제도** 등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여 **민간 수요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**이라고 강조하였다.

【붙 임】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 개요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 개요**

1. 배경

□ 금속비축 종합계획 발표('22.12)에 포함된 비축확대,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 **세부 이행방안 논의** 및 **점검**

< 금속비축 종합계획 주요내용 >

◆ **△비축확대, △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, △비축기반 고도화** 등

○ **(비축확대)** (비축일수) (비철금속) 56일 → 60일, (희소금속) 57일 → 100일
(품목) ('22년) 25종 34품목 → ('31년) 26종 41품목

○ **(대응체계 합리화)** 방출 절차 간소화(現 60일 → 30일), 순환대여제도 도입 등

○ **(비축기반 고도화) 희소금속 전용기지 신설,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 신설 등**

2. 개요

○ **(일시/장소)** 1.31(화) 오후 4시 / 서울 롯데호텔 2층

○ **(참석자) 에너지정책실장, 광해광업공단 사장, 수요기업 등 약 10여명**

* (이차전지) 에코프로머티리얼즈, 코스모화학, (전기차) 현대차, (반도체) SK스페셜티 (철강) 포스코, 현대제철 등

○ **(주요내용)** △민관 비축업무 협약 체결*,
△비축사업 민간지원제도 소개 등

* 정부 비축기관과 산업별 대표 수요기업 간 협약식 체결로 민관 상호 협력 강화
→ (기관) 비축확대, 수급위기 대응 지원, (업계) 순환대여·시범방출 및 산업생태 조성

3. 상세일정

시 간		내용	비 고
16:00~16:03	('03)	모두 발언	**에너지정책실장**
16:03~16:08	('05)	비축 업무협약 체결식	
16:08~16:23	('15)	핵심광물 비축사업 민간지원제도 소개	
16:23~16:58	('35)	의견 수렴	
16:58~17:00	('02)	마무리 발언	**에너지정책실장**